

지난해 임산물 총 생산액 8조 넘어…단기임산물은 감소

냉해·장마 등 기상악화로 단기임산물 6천억 가량 줄어

순임목 생산액 증가에 따라 전체 임산물생산액은 늘어

지난해 총 임산물 생산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단기임산물생산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산물 생산액은 8조 1804억원으로 전년 6조 5667억원 대비 24.6% 증가했으나 단기임산물생산액은 2조 1282억원으로 2019년 2조 7278억 원 대비 5996억원 감소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 감소는

지난해 냉해, 장마,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재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나 단가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했고 밤·호두·대추 등 수실류는 냉해피해, 바람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약용식물 중 오미자는 생산량의 감소에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액은 증가했고 마·독활은 생산량 저하가 생산액 감소로 이어졌다.

더덕·고사리·취나물 등 산나물 또한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로 생산액

이 떨어졌고 버섯류는 생산량 및 생산액이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북도가 5300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도(2888억원), 전북도(2622억원) 전남도(229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최다 생산지 분석에서 밤은 충남 부여가 전체 생산비중의 25.3%를 차지하며 최다지역에, 호두는 충북 영동(212%), 대추는 충북 보은(30.1%), 마는 경북 안동(64.4%), 복분자딸기는 전북 정읍시(38.3%)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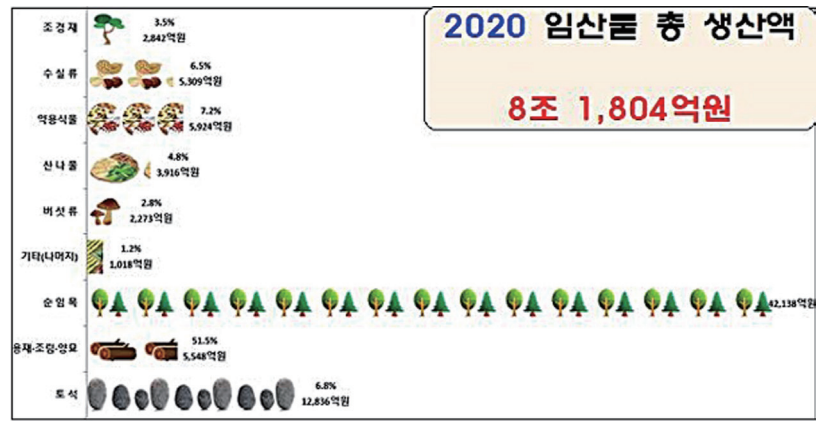
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감소에도 순임목 생산액이 크게 늘면서 총 임산물 생산은 증가했다.

이는 5년 주기로 공표되는 ‘2020년 산림기본통계’에 따라 5영급(41년생 ~ 50년생 나무)에 분포하는 나무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2015년 대비 100.7% 증가)해 42조1398억원을 기록,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밤과 호두 등 표본



조사(5개), 용재와 토석 등 행정조사(31개), 조경재와 약용식물 등 전수조사(111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대의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연초에 발표한 임가경제조사에서는 임업소득이 전년 대비 10.6% 감소했는데 이는 단기임산물 생산감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해서 임산물 생산 동향을 파악해 임산물 생산변화 등 현장 임업소득 증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0% 이상 증가한 테슬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성수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138억달러(약 16조2150억원)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페이코인,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 출시 예정

페이코인 앱 내 비트코인 금융서비스 출시 예정



페이코인(PCI)의 운영사 다남핀테크는 지난 22일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 기업 비브릭과 업무협약을 맺고, 페이코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 상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남핀테크는 플랫폼으로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안내하고, 비브릭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인은 준비 중인 투자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쉽고 간편하다는 점을 꼽았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페이코인의 서비스는 이러한 복잡

한 과정을 간편화 시켜 페이코인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더불어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도 탁월하다는 설명이다. 다남핀테크는 국내 결제서비스를 다남의 계열사이며 비브릭은 통신 중견기업 세종텔레콤의 자회사로 모기업인 안전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페이코인은 발행사 페이프로토크를 통해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페이코인은 이번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씨티은행, 결국 소비자금융 청산…신규 중단·희망퇴직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수순을 밟는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유영순 씨티은행장은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최고경영자(CEO) 메시지에서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씨티은행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해

지난 4월 소비자금융 철수 공식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은 행내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안

내할 예정이다.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티은행 본사인 씨티그룹은 지난 4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 사업을 4개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국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67년 국내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씨티은행을 출범시킨 지 17년 만이다.

최이슬기자

현대캐피탈 “전기차 리스·렌트 상품 계약건수 10배 증가”

MZ세대 호응 높아

리스와 렌트를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1~6월) 리스·렌트 상품의 평균 계약 건 대비 7~9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계약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사업 실적 중 리스·렌트의 비율은 98.2%에 달한다.

현대캐피탈 리스·렌트 상품이 상반기 대비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리스·렌트 자체의 상품성과 고객 편의를 지향한 디지털 프로

세스의 고도화를 꼽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캐피탈 리스·렌트 상품은 신청부터 출고까지의 전 과정이 디지털로 진행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3월 기존 프로세스를 30% 가량 간소화하는 등 고객의 접근·편의성을 강화했다.

신차 이용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리스·렌트를 통한 전기차 이용은 신속한 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신차 출고는 평균 8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반면, 리스·렌트를 통한 전기차는 14일 이내로 즉시 출고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행 서비스는 출고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

현대캐피탈은 전기차를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을 분석해 공개했다. 연령별로는 30대(24%)와



40대(37%)가 전체 이용 회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23%), 60대 이상(10%), 20대(7%)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요 고객층이 40~50대인 것에 비해 전기차는 MZ세대로 일컫는 20~40대 초반의 호응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2%, 여성이 28%로 남성 회원의 비중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높으며, 차종별로는 ‘아이오닉5’와 ‘EV6’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선옥기자

전국 땅값 또 뛰었다…3분기 지가 1.07% 상승

세종 1.48%·서울 1.32%·경기 1.13% 등 평균 상승

올해 3분기(7~9월) 전국 지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12.3% 줄었다.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48%를 기록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도 평균을 상회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분기 전국의 지가는 1.07% 상승해 올해 2분기(1.05%)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작

년 3분기(0.95%)에 비해서는 0.1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은 1.19%에서 1.2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도 0.80%에서 0.72%로 확대됐다.

수도권에서 서울이 1.32%, 경기도가 1.13%, 인천이 1.12% 올랐고, 지방에서는 세종이 1.48%, 대전이 1.13%, 대구가 1.12%, 부산이 1.09% 등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영도별로는 주거지역이 1.18%

올랐고, 상업지역이 1.16%, 녹지가 0.95%, 농림지역이 0.92%, 공업지역이 0.65% 올랐다.

3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8만7000필지(479.6㎢)로, 2분기 대비 12.3% 감소했다.

영도지역별 주거 3만5000필지, 상업 2000필지, 녹지 8000필지 각각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27.7% 감소했고, 대구(-27.0%), 부산(-21.5%), 제주(-20.7%)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대상 금융서비스인 카카오뱅크 mini에 26일 동안 매일 1000원씩 돈을 모을 수 있는

‘mini 26일저금’(26일저금)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일 저금에 성공하면 모바일 애플

청소년 대상 금융서비스

리케이션의 26일저금 서비스 화면에 ‘니니즈 캐리터’가 하나씩 늘어난다. 도전 현황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6일저금은 매일매일 저금을 한다는 경험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며 “기존 카카오뱅크 mini의 ‘돈을 주고 받고 쓰는’ 서비스에 ‘모으기’를 결합해 기본적인 금융 생활의 완성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